

## 교양 - 삶의 지침을 검토하는 이성의 연마

### 1. 교양의 외관에 대한 숭배의 몰락

교양의 의미는 대학제도가 만들어졌던 서양에서도 왜곡될 수 밖에 없는 역사를 지녔다. 공통된 교과과정의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야 비로소 갖추게 되는 언어능력, 문학과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림과 음악에 대한 미감은, 고등교육이 대중화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교양의 외관은 주로 지배계급의 표지로 작용하였다.

오늘날 고등교육은 더 이상 소수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권력의 지도는 더 이상 위와 같은 교양의 외관을 갖추느냐 갖추지 않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이를 매개로 다른 분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없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생활에서 직접 요청하는 기능이지, 사문화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문학과 역사에 대한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스키마나 예술적 미감이 아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교양이란 허영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들만의 “유리알 유희”에 불과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는 어려워 보이는 꼬부랑 글씨와 수식, 안경을 끼고 스웨터를 입고 풍뎡한 면바지를 입은 패션감각 없는 외모, 마침내 노벨물리학상을 받는 영광의 순간이야말로 물리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벨물리학상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물리학이 자연의 질서에 대한 탐구로서 갖는 가치가 갑자기 낮아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교양의 외관에 대한 숭배의 몰락이 교양 자체에 대한 필요성의 사멸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다.

### 2. 삶의 지침을 구하는 문제해결 능력으로서 교양

우리 삶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선택의 연속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지침이 필요하다. 선택 없이 사는 사람은 없고 또한 지침 없이 사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침이 어떤 종류의 것이며,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에서 탈영하여 집에 돌아온 일본군 탈영병이 있다고 하자. 이 탈영병 청년은 집의 비밀 다락방에 숨어서 누이동생이 주는 주먹밥을 먹으며 언제 헌병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냈다. 그러다 전쟁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이제 누이동생만이 탈영병을 보호해주는 처지였다. 그런데 사실 이 탈영병은 군에 징집되기 전에 장남의 권력을 사용해서 누이동생을 심하게 팔시하고 착취하였는데, 누이동생은 그것에 양심을 품고 실제로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헌병 수색과 폭격 소리를 내며 연기를 했다. 탈영병은 그것도 모르고 누이동생에게 평생 감사하면서 숨어서 주먹밥을 먹다가 다락방에서 노환으로 사망하였다.

일본이 승리하고 있으며 그 승리에 목숨을 보태는 것은 값지다라는 군대의 선전을 믿지 않고 탈영을 선택한 것은 제대로 된 지침에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이 정의롭다는 내용과, 그 전쟁을 이기고 있으므로 곧 일본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라는 군이 유포한 정보를 자신의 선택의 기초로 삼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탈영병은 장자의 권력을 활용해서 횡포를 일삼는 자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대전이 원래 그토록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말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가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전적으로 누이동생에 의존하여 구했다.

군대의 선전이, 실제 전쟁의 정의로움을 규명하거나 병사들의 소중한 목숨을 아끼거나 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유통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씩 헌병의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는 누이 동생의 말도 전략적인 종류의 정보다. 만일 이 일본병사가 장자의 권력에 대해 평소에 숙고하고 제대로 행동했거나, 나중에라도 반성하고 누이동생에게 사죄했거나, 현대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었거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를 누이동생의 야단법석 말고 다른 것에서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그토록 심각한 낭비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일본인 병사가 다락방에 비참하게 갇혀서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못했다는 그 사실만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만일 누이동생이 일본인 병사에게 머리에 둘러쓰는 자기 자극 장치를 갖다 줬으면 어땠을까? 일본인 병사가 전후의 고생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드문드문 느꼈을 것보다 훨씬 더 빈도나 강도면에서 우월한 감각적 쾌락을 그 자극 장치가 가져다 줬다면 어떨까? 일본인 병사의 마음은 누이동생에 대한 고마움과 더불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는 강렬한 오르가즘으로 점철되었을지도 모르나, 그의 삶이 주어진 도전에 올바르게 응전한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권위로 바꾸면 평화로운 사회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정당화해줄 도덕이론-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딱 그만큼을 주게 된다-을 수립하고, 참과 거짓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사실에 관한 명제-불황기에 세금을 깎으면 경제가 살아나서 결국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도 유리하게 된다-를 유통시킨다. 규범적 명제와 사실 명제를 뜯어보고 음미하고 그 정당성을 판별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 아예 그것을 뜯어보고 판별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전략적 정보로 가득한 안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략적 행위를 통해 정보를 유통시킨다고 해서, 그들이 실제로 진리를 이미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보통은 이익이 되는 정보를 진리라고 믿는 편이 심리적으로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다. 청년기에 자신이 부동산 투기에 예술적인 재능을 지녔음을 발견한 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부동산이 폭등하는 시기 동안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다시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 빌린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또 사고 하는 식으로 하여 때부자가 되었다. 길동이는 이와 같은 부의 축적이 기민하게 움직인 자신의 성실성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여긴다. 물론 그 명제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은 알지만 그 진리성을 진심으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지식이란 권력이 산출하기 마련이라는 점만을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은 어떤 언론인이 정부의 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처벌받는 상황을 보고,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직업생활의 이익을 위해 언론 권력이 주장하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가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명제는 정부의 권력이 주장하는 것이니, 믿을 것 하나도 없다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으로 회귀하고 만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결국 믿을 것은 돈과 같은 권력 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하여, 시작도 끝도 주체도 목적도 없이 오직 권력이 다시 권력만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뿜어져나온 정보 조각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곧 실제의 세계로 의제하고 충실히 그 세계의 논리를 따르면서 평생을 살다가 마감하게 만든다.

위에서 예로 든 부동산 투기의 귀재 길동이는 삼십대 중반부터는 명화들을 수집하여 집에

걸어놓았으며, 그림 공부를 해서 미학적인 비평 수준도 상당하였다. 그러나 길동이는 거액의 돈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뽕소니를 당해서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지경에 놓인 아이를 그대로 보고도 지나친 적이 있었으며, 선거 때에는 어느 정당이 나에게 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만을 기준으로 하여 투표를 하였다.

앞서 들었던 일본인 병사와는 달리, 길동이는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갇혀 있지도 않았고, 의도적인 계락을 세우는 누이동생 따위에게 속은 적도 없었다. 오히려 스스로 선택한 지침 덕택에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딱 들어맞으며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동이가 채택했던 지침들이 제대로 된 것이었으며, 길동이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길동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가 더 많은 쾌락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법칙'이 있다면, 당연히 길동이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을 택하겠는가? 길동이가 투표하듯이 모든 사람이 투표하면 좋겠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중요하다.

위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사람은 전략적 행위로 직조된 세계에서 떠다니며 쾌락을 수집하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삶에 있다고 생각하며, 인간이란 쾌락의 흐름을 담는 그릇 이상의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셈이다. 우리가 “아니오”라고 답하며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길동이 같은 사람이 많아지고 그들의 가치관대로 이 사회의 질서가 수립될 수록, 우리 자신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가치롭게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좁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삶을 주재할 권리를 위해 투쟁한 많은 사람들 덕택이며, 그렇게 따낸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록 우리의 영혼은 타인의 질서에 소유될 것이다. 특히 부동산세, 복지제도, 교육제도, 노동관계법 등 정치를 통해 집단적으로 결정되는 문제들을 우리 개인 개인의 선택을 실제로 강제한다. 따라서 그것이 단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관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은 인생의 대부분을 전략적 정보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타인들에게 말김으로써 자율성을 그만큼 상실해버린 것이다.

진정한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끊임없이 지침의 토대를 검토하는 비판이라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비판은 비판의 준거를 필요로 한다. 불행히도 이 비판의 준거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래적으로 떠오르지 못한다.

전략적 정보는 때로 널리 퍼져 시대정신을 이루기도 한다. 그런 전략적 정보는 애초에 우리의 뇌에 뭔가 잘 와닿고 호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토록 널리 유포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타고난 통계학자요, 물리학자요, 윤리학자이지만 그 한계도 명백하다. 우리는 이중맹검법을 통과한 가설보다는 일화적인 이야기로 확증된 가설을 더 설득력있는 것으로 생각하며<sup>1)</sup>, 운과 우연의 일치를 정규적인 패턴이나 본질로 인식해서 주가의 차트분석으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sup>2)</sup>, 소용돌이 경로를 통과해 발사되는 돌은 빙글빙글 돌아가는 본질을 갖기 때문에 회전하며 진행한다고 생각하며, 미추관념과 위생관념을 선악의 개념과 같은 뇌 영역에서 처리하며 동일한 범주라고 생각하기 쉽다<sup>3)</sup>.

---

1) 일화적인 증인은 위약효과처럼 실제 효과와 관계없는 이유로 얼마든지 풍부하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으나(Paul, G. L., *Insight vs. desensi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6) 생생한 기억을 더 진실된 것으로 믿는 “생생함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Baron, J. *Judgment misguided: Intuition and error in public decision ma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과학적인 통계보다 의견에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심리학의 오해(신편)>, K. E. 스타노비치, 신현정 역, 헤안, 2003 참조.

2) B. Malkiel, *A Random Walk Down Wall Street*, New York: Norton, 2003 및 M. Fridon, *Investment Illusion*, New York: Wiley, 1993 등의 연구결과를 소개한 국내문헌으로는 <생각의 오류>, 토머스 키다, 박윤정 역, 열음사, 2007 참조

최근 <시크릿>이라는 책의 선풍적인 인기는, 사람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음미하는 능력을 애써 갖추지 않는 한 지나치게 노골적인 허구라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책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염원이 전파 형태로 우주에 쏘아올려지며 다시 이와 같은 형태의 파동이 지구상에 반송되어 염원이 이루어진다는 해괴한 이론을 주장하고 있었다. 주차하러 가면서 주차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차공간이 ‘짤’ 하고 나타난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더군다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욕망하는 것도 긍정적인 생각이라니 욕망의 전체를 규범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를 염원하여 부를 축적한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삶의 모델로 언급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시크릿>의 내용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쉽게 통용될 수 있는 전략적 정보의 일종이다. 규범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는 것(예를 들어 동성애자가 왕따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거나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일)은 긍정적인 마음을 먹지 못하였기에 생긴 일로서 자업자득이므로 다른 사람을 탓할 일이 못된다. 사실명제로서, 각자가 부딪히는 삶의 어려움은 정의로운 원칙에 따라 사회를 효과적으로 개선시키는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인 개인이 열심히 우주에 전파를 쏘아올려서 해결할 일이다.

이 전략적인 정보가 지시하는 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그 효험을 신앙고백했다. 수천개의 리뷰는 그 자체로 시크릿의 진리를 보증하는 명백한 ‘증거’다. 물론 효험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정성이 부족해서다. 시크릿을 진심으로 믿고 긍정의 파동을 우주로 쏘아 올려야 하는데 반신반의하느라 파동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음미하는데에 합당한 규범적 추론이나, 합리적인 반증 절차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가만히 시간만 흐른다고 해서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저절로 길러지게끔 인간의 두뇌는 생겨먹지 않았다. 인간은 다수의 눈치를 보며 경쟁하고 협력하여 살아남는 데 적합한 두뇌를 물려받았지, 인생의 객관적 가치를 추구하며 방향타를 점검하는데 적합한 두뇌를 태어나지 않았다. 비판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비판의 준거를 갖추는 것은 오직 이성을 예리하게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성의 연마를 우리는 교양이라 부른다.

구별짓기를 위한 외관의 확보는 교양이 아니다. 계급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행위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검토하는 것이 연마된 이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또한 교양은 과시할 수 있는 정보의 집적이 아니다. 산만하게 의미없이 집적되기만 한 정보는 삶의 지침으로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교양은 문제를 설정하고 그 문제에 답하는 활동이다.

학교제도 내에서 교양과목은 교양을 전략적 행위로 변환시킨다. 점수따기, 가르치는 자의 의중을 추측하기, 시험에 어느 부분이 나올까를 고민하기, 학부제에서 더 인기 좋은 전공을 택하는데 도움이 될 과목 선택하기는 “가르치고 배운다”는 활동을 전략적 논리에 종속시킨 꼴이다. 더 나아가 각 학문분과는 너도나도 “자신의 과목에서 산출한 정보야말로 필수교양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그래서 교양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을 당위적인 어투로 듣는 젊은이는 학문분과 이기주의의 전장에서 승리한 교본들을 종합선물세트처럼 삼켜야 하는 고역에 놓인 기분부터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교양의 외관이 아니라 교양이며, 점수따기의 과정에 더 많은 정보를 우겨넣어 억지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3) 인간이 타고난 물리적 추론에 내재된 오류에 대해서는 Michael McCloskey, "Naive Theories of Motion," in D. Gentner and A. L. Stevens (eds.), *Mental Model*, Hillsdale, N.J.: Erlbaum, 1983 등의 연구를 소개한 <직관의 오류>, 데이비드 G. 마이어스, 이주영 역, 궁리, 2008 참조. 생래적인 규범적 추론에 내재된 오류에 대해서는 <빈 서판-인간은 본성을 타고나는가> 스티븐 핑커, 김한영 역, 사이언스북스, 2004 참조.

교양을 쌓아가는 방법으로 적정하지 않다.

### 3. 배움의 구조와 교양의 도정

교양을 쌓는다고 해서 도서관에 가서 각 학문분과가 자랑하는 수많은 지식의 현란한 춤에 압도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프로그래머가 빅뱅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삶의 지침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교양이 수박 겉핥기와 같은 것이 될 수도 없다. 모든 지식의 습득은 배움의 구조 속에 있으며 전문분야가 아닌 교양의 습득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배움이란 “① 어떤 영역의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② 정신의 통제와 주의력을 요하는 훈련을 통해 ③ 지식의 저변에 깔린 규칙의 구조를 능숙하게 다루어 답을 내고, ④ 때로는 규칙을 쇠신하거나 새로이 창조해내는 과정을 ⑤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수준에 따라 즐기는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경험”이다.

전공학문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사회에 나가 복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실무를 하게 되면 이 구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교양에는 이런 경험을 확장하지 못한다. 소비자 잉여를 분석하는 틀을 가져와서 사회전체의 규범적 분석에 쓰면서도 숨겨진 규범적 전제의 오류를 깨닫지 못하는 경제학자가 있다. 정치가이면서도 황우석이 제출한 논문의 진실성은 반증가능한 실험이 아니라 병원에 드러누운 환자의 수염에서 표현되는 진정성과 사이언스 지의 권위에 의해 보증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다른 분야의 탐구 논리와 지식을 진지한 자세로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 분야에서의 훈련은 자동적으로 선택의 여건을 이루는 지식과 정보에 대한 예리한 칼날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양은 배움의 구조와 무관하게 대충 상식 수준에서 정보를 접하면 되는 것이라거나, 주류와 다르게 생각하는 안티테제로서의 성격에 있다는 자세가 만연해 있다. 오늘날 한국 출판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인문사회 서적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치밀하게 논증하는 책이 아니라, 명망 있는 필진들이 대충 쉬운 말로 사회에 비판적인 낯두리를 늘어놓은 짧은 글들을 묶어내는 책이다. 흥미로운 점은 그런 책을 사는 사람은 매번 그런 종류의 책만 사서 읽는다는 것이다. 비슷한 걸 이미 읽었으니 이제 그만 읽어도 될 터인데 계속 사서 읽는다. 이런 사태는 배움의 구조와 무관하게 인식되는 교양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자신의 분야는 이리저리 먹고 살기 위한 강제에 치이면서 어떻게든 익숙해지는데 반해, 교양지식은 너무 많은 것 중에서 과연 무엇을 진지하게 배울 것인가를 고민하기가 힘들어 수박 겉핥기로 상식을 갖추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의 전부라고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움의 존재가 연마된 이성이 아닌 것을 마치 연마된 이성인 것처럼 둔갑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계속해서 알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노력은 제대로 된 구조 속에 놓여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몇 가지만 일러두고자 한다.

첫째, 자기 삶의 주재자이자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언제나 피해갈 수 없는 것 문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엇이 규범적으로 옳은가?”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것이 경험적으로 사실인가?”하는 문제다. 따라서 “윤리학”과 “과학방법론” 두 영역에서 사용되는 추론의 규칙을 갖추는 것은 교양의 필수 요건이다.

둘째, 살아가면서 자기 삶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에 대해 떠오르는 의문들을 적어서 잘 정리해야 한다. 의문은 널리 유포되는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생길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세계는 세계 경쟁이 극화되고 있어서 국가 경쟁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파견근로는 고용유연화에 친화적이므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널리 유포된 주장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국가 총 부의 극대화가 권리를 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사회운영의 기본원리로 제시되는데 이유로 제시되는데 이것이 타당할까?”

“파견 사업주는 현대판 마름인데, 과연 그렇게 중간착취자가 끼는 것이 정말로 도움이 되나? 농경사회에서 마름이 있는 사회가 마름이 없는 사회보다 더 생산성이 높은가?”

“국가는 기업과 같을까? 국가경쟁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아니면 국가경쟁력은 비교우위를 전제로 하는 경제학에서 인정되지 않는 정치적 개념이 아닐까?”

이런 문제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면 평소에 공책에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문제들에 관련된 분야의 책들을 찾아본다. 그 분야의 책을 쉬운 것부터 읽어 나가고, 교과서도 본다. 교과서는 문제해결의 전형적인 방법을 배우고, 문제의 맥락과 위치를 알고 보아야 할 책들을 찾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사용한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다시 새끼 문제, 즉 하위 문제 설정을 낳고, 때로는 친척 문제, 즉 관련 문제 설정을 낳는다. 이런 새끼 문제와 친척 문제도 잘 적어두어야 한다.

넷째, 하위 문제 등 큰 문제든 다른 사람의 생각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끊임없이 생각해본다. 잠정적으로 답을 적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답을 고친다. 자신감을 가질 만큼 답을 구하면 그 답과 논증, 근거, 참고문헌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다 검토할 시간도 없다. 쟁점이 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면 어떤 학문분과에서 전문가들 대다수가 합의한 결론이 있으면 잠정적으로 채택하고 진짜 풀려고 했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깊게 탐구하고 싶은 문제는 단계별 상생을 염두에 둔다. 즉,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지적 장비와 도구를 구비하기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면 마음먹고 훈련에 임한다.

여섯째, 관심이 가는 책들은 때를 가리지 않고, 문제설정과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읽는다. 흥미를 충족하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읽은 책들이 다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때가 많다.

일곱째,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자기 생각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배움의 모임이 필요하다. 책 한 권 읽고 와서 낱말 발언 몇 번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먼저 문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비슷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도와가고, 스승도 같이 구하고, 글도 올리고 서로 읽어보고, 서로 읽은 책도 소개하고, 참고문헌도 같이 구하고, 문제의 답을 검토하는 모임 말이다.